

# “한 푼이라도 벌려고” 오지 않는 손님 기다리며 땀 줄줄

폭염 속 좌판 까는 고령 상인들...전남 전통시장 가보니

대부분 개방형 구조...냉방시설커녕 선풍기 틀 전선도 없어  
수산물 지키려 한 봉지에 5천원 하는 얼음 나르느라 진땀만  
전통시장 존립 위협...도 “구조 복잡, 폭염 대책 마련 어려워”

“건강도 안좋지, 폭염이라는데 시장에 더위 피할 데도 없지, (자식들이) 장에 나가지 말라고 하지, 그래도 나가야지, 한두푼이라도 벌려 나와야지...”  
지난 11일 광양시 광양5일장에서 야채를 판매하는 박양순(여·73)씨는 낱아서 먼지가 두텁게 쌓인 선풍기 앞에서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땀을 줄 줄 흘리고 있었다. 그나마 박씨는 주변에 전기를 끌어올 테가 가까워 선풍기라도 이용이 가능했다.

박씨는 70세가 넘었지만 폭염에도 에어컨 등 냉방기는 커녕 얼음을 한 봉조차 찾기 힘든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더위를 버텨내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차피 재래시장 자체가 사방이 둘러있는 구조라 에어컨 바람을 기대하기는 무리지만 폭염을 견뎌낼 별다른 냉방 시설이 전혀 없어 박씨같은 70대 노인 대부분이 숙절없이 땀만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었다.

같은 날 무안군 일로전통시장에서 낙지와 바지락 등을 팔고 있던 김장례(여·77)씨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급세 녹아버리는 얼음을 다시 채워넣느라 수시로 한봉지당 5000원씩 하는 얼음 봉지들을 들고 나르며 진이 빠진 채 한마디 했다.

김씨는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면 인근 식당으로 가 밥이라도 먹어야 하고 선풍기를 전선 구하기도 힘든데, 누가 시원한 대형마트 가지 시장을 오겠나”고 했다.

지난 11일 순천·무안·광양·나주 등 전남 지역 재래시장에 좌판을 펼친 고령층 노인 상인들이 폭염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군 전통시장 상인과 손님 대다수가 건강 취약 계층인데도, 지자체 무관심과 열악한 시설 구조 등으로 장날에도 ‘점동’같은 재래 시장을 부채질만으로 지키며 앉아있는 형편이다.

대부분 시장 천장만 있는 개방형인 시장이 대부분이고, 개인 좌판으로 전기를 끌어올 정도로 시설이 좋지도 않다보니 선풍기라도 있는 좌판을 운영하는 노인 상인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전남지역 전통시장 총 114곳 중 60~70%는 지붕만 얹어놓은 개방형 구조다. 얼음 생수 등도 없어 인근 식당으로 가 양해를 구하고 마시는가 하면, 대부분 부채질로 버티면서 시장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찾아간 순천웃장 내 국밥거리 노인 상인들도 숨이 턱 막히는 공기 속에서 술 앓을 지키며 손



장날을 맞은 지난 11일 나주시 남평읍 남평5일시장에서 상인들이 부채와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나평주 기자 mjna@kwangju.co.kr



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광장에 조성된 그늘 쉼터에 벽걸이 선풍기 6대의 바람이 이들에게까지 닿을 것 같지 않아 보였다.

그나마 옷장의 경우 다른 지역 시장과 달리, 상인회 건물 2층 다목적실에 무더위쉼터와 쿨링포그 등 냉방 설비를 갖추고 있어 신식 시설로 꼽힌다.

고장난 냉방 시설을 방치한 채 운영하는 시장도 있다.

무안 일로전통시장은 지난 2023년 전남도 지원으로 쿨링포그 선풍기 16대를 설치했지만 현재 고장나 작동이 불가능하다. 일부 상인들이 자체적으

로 벽면에 설치한 선풍기는 떨어져 나갈 듯 했다.

광양5일장은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상인들이 개인용 선풍기 켜둘 공간이 부족하니 ‘분전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어 거절당했다는 게 상인들 하소연이다.

그렇다고 마음껏 하소연 하기도 눈치 보인다는 게 노인 상인들 입장이다. 시장 특성상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권이고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도 많은데, 무작정 지자체 도움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남도도 전통시장 대부분이 자연발생형이라 구조가 복잡하고 유형이 다양한데다 운영 주체, 점포

수, 공간 구성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 각 시·군에 가림막 보강과 상인회 사무실·교육장 등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시·군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을 뿐 별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통시장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만큼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무등산 토끼등 화장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시와 상의없이 엉터리로 조성”  
강기정 시장 공단에 대책 요구

무등산국립공원에 어울리는 환경 친화적 화장실 조성 (광주일보 7월 9일 7면)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즉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등산 산행 중”이라는 글을 올리며 “시민이 사랑하며 쉬어가는 무등산을 광주 시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엉터리로 화장실을 지어놓다니요!”라고 썼다.

그는 “지나가는 여르신들이저를 보자 ‘토끼등에 만들어진 화장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으며) 불만을 토로해 예정된 산행로를 바꿔 ‘토끼등 화장실’로 가보았다”면서 “화장실을 보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일 토끼등 소리정 맞은편에 4억 2000만원을 들여 높이 6m의 화장실(연면적 80.34㎡)을 조성, 개장했는데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데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등산 토끼등 화장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인근 등산로에 현수막을 걸었다. <강기정 페이스북 갈무리>

바람길을 막고 있다는 등산객들의 원성을 사면서 ‘세금으로 짓는 국립공원 화장실을 이렇게 밖에 못 만드냐’는 등산객들의 비판을 받았다. 조만간 조성될 예정인 장벌채 화장실도 비슷한 형태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지어질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 시장도 “바람길을 막고 풍경을 해치는 화장실을 보며 모든 등산객들이 철거를 요구하며 한마디씩 말씀하신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시민이 사랑하며 쉬어가는 무등산을 광주시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엉터리로 지어놨다”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했다. 강 시

장은 “무등산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민들께 다시 보고 드리겠다”며 글을 맺었다.

강 시장은 자신의 글 말미에 ‘국립공원 이사장님! 화장실, 이것은 아니지요’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등산로 사진을 첨부했다.

당시 박홍근 광주시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무등산 국립공원 토끼등 화장실 등 공공화장실과 관련, “우리나라 공공화장실은 아직도 벽, 천장, 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라며 “이제는 공공시설을 문화자산으로 바라봐야할 시점”이라고 했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광주·전남 토요일까지 오락가락 비...평년 기온 회복

광주·전남 지역에 이번주 토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오는 19일까지 1주일 내내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15일까지 광주와 전남북서부 지역에 30~80mm, 전남에는 50~100mm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다시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3일 오후 6시 30분 기준 여수는 호우경보가, 장흥·강진·해남·곡성·구례·화순·고흥·보성·광양·순천·완도·영암·거문도, 초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아날 오후 5시까지 누적강수량은 나주 다도 114.5mm, 해남 북일 111.0mm, 강진 성전 109.5mm, 장흥 유치 95.5mm, 해남 94mm, 영암 학산 82.5mm 등이다. 하루 최대 1시간 동안 나주 다도 38.5mm, 해남 북일 34.5mm, 장흥 유치 32.0mm, 강진 30.5mm가 내렸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2도, 최고 26~30)과 비슷하겠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 ‘국제농업박람회’ 기간 전남 관광지도 할인

도, 10월 23~29일 입장권 소지자

오는 10월 열리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은 다른 전남 관광지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국제농업박람회(10월 23일~29일) 입장권 소지자에 대해 박람회 기간 전남 관광지 할인을 적용키로 했다.

박람회 사무국은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의 경우 박람회 기간 27개 전남 주요 유료 관광지를 최대 50% 할인된 입장료로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예매로 1만원(일반권) 짜리 박람회 입장권을 7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입장권으로 여수해상케이블카, 구례 수목원, 해남 산이정원, 진도 윤림삼방 등 입장할 때 최대 절반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창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